



일본 만스케 극단 판토마임



태국 알레노 미술 공연



멕시코 마리아치 공연



한국 서승아 퍼포먼스

日·佛 마임 명인, 중국 기예단, 美 윌맨 라이브 밴드...거리공연 달인 총출동

목포에서 국내 4대 거리공연 축제 중 하나인 '세계 마당 페스티벌'이 열린다. 한여름 밤 목포 근대역사문화 공간 등지에서 열리는 이 행사는 '마당의 꿈'이란 주제로 '기발한 상상축제'를 선보인다. 또 이색적이고 실험적인 공연도 곁들여진다.

◇한국 등 5개국 연합 주제공연=올해로 14회째를 맞는 세계 마당페스티벌은 7월 24일부터 27일까지 목포 '차 안 다니는 거리'를 비롯해 로데오광장, 오거리, 북교초교 등 총 10곳에서 펼쳐진다.

이 행사는 극단 깃들(대표 문관수)이 지난 2001년부터 개최해온 '전국 우수 마당극 제전'이 그 시초였다. 이후 '목포 마당 페스티벌'을 거쳐 지난 2012년부터 '세계 마당페스티벌'로 위상을 높였다. 올해는 문화체육관광부 대한민국 대표 공연예술 축제로 선정돼 5000만원을 지원받았다.

이번 축제의 백미는 미국, 프랑스, 중국, 일본, 한국 등 5개국의 공연자들이 연합해 제작한 주제공연이다.

주제공연은 지난 1936년 찰리 채플린이 만든 영화 '모던타임스'를 원작으로 현대인의 지친 삶을 마임(mime), 춤, 서커스 등으로 선보인다.

총연출을 맡은 태국 거리예술축제 집행

한 여름밤 상상축제 마당예술 큰판 선다

내달 24~27일 목포 세계 마당 페스티벌

위원장인 고지마야 씨는 "과거나 현재에도 전 세계가 안고 있는 인간의 기계노예화, 고노동 저임금, 고용불안, 실업난 등 지구촌 사회문제를 인류 공동의 시각으로 가져와 인간존재의 상실감 같은 것들을 말아안고 표현하고자 했다"고 밝혔다.

이 공연에는 마임 명인 일본의 '츄샤'와 프랑스의 '셀린바케', 인형과 연주를 하나로 아우르는 윌맨 라이브 밴드인 미국의 '그레고' 등이 참여한다. 또 화려한 기예로 매력을 발산하는 중국의 '조스이', 줄타기로 세계적인 명성을 떨치고 있는 일본의 '다이스케' 등이 참여해 화려한 볼거리를 선사한다.

◇신명을 통한 목포의 재발견=이번 축제는 목포 지역의 문화적 가치가 담겨 있는 곳을 찾아 나선다. '목포 근대역사문화의 거리여행단'을 모집해 해설자와 함께 참가자들이 거대한 흥등을 밝히며 선정된 곳을 순회한다. 순회공간마다 근대문화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각종 공연과 설치미술, 퍼포먼스 등이 펼쳐져 축제의 밤을 달구게 된다.

또 목포북교초등학교 느티나무, 지난 1897년 유진 벨이 설립해 1919년 목포 4·8만세 운동의 거점이 된 양동교회, 목포가 낳은 최초의 근대 예술인 극작가 김우진 생가터 북교동성당, 1916년 가난한 집

안의 딸로 태어난 '목포의 눈물'을 부른 가수 이난영 생가 터 등이 주요 축제 공간이다.

눈여겨보아야 할 공연도 많다. '마당극 거장' 채희완의 칼노래 칼춤 공연은 동학농민혁명 120주년 기념으로 마련된 마당극이다. 칼노래 칼춤은 지난 1994년 초연된 지 20여년 만에 다시 무대에 오른다. 동학농민들의 승리와 패배를 칼춤, 북춤, 깃발춤 등으로 형상화해 우물거 아낙들의 처참한 눈물과 병신광대의 정겨운 웃음을 마당 판에 가득 쏟아낸다.

부도(Butoh)무용의 대가 서승아씨의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들의 슬픔을 위로하기 위한 퍼포먼스도 의미있다. 부도는 일본 전통예술인 '가부키', '노'와 서구 현대 무용이 만나 탄생한 아방가르드 무용의 한 장르이다.

이 밖에 병신춤, 봉산탈춤, 마산오광대, 퓨전국악 나나나나 등 신명난 마당극이 펼쳐진다.

문관수 깃들 대표는 "이번 행사의 의미는 문화적으로 소외받은 시민들이 공연을 통해 위안을 얻고 삶의 활력을 재충전하는 데 있다"고 밝혔다.

/*목포=김준석기자 yousou@

고용노동청 목포지청·조선이공대학·유진기업

청년층 일자리 창출 산·학·관 업무협약

광주지방고용노동청 목포지청(지청장 황선범)과 조선이공대학 유진기업(주)은 최근 지역 조선업종의 인력수급 미스매치 해소와 청년층 일자리 창출 활성화를 위해 산·학·관 업무지원 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전남 서남권지역의 핵심 산업인 조선업이 현대삼호중공업(주)과 대한조선(주) 등의 수주물량 증가로 활기를 띠에 따라 올해 신규인력 2500여 명이 필요하게 돼 이뤄지게 됐다.

이번 협약에서 조선이공대학은 우수 인력 육성 및 지원, 유진기업은 신규직

원 채용시 대학졸업(예정)자 우선채용, 목포고용노동지청은 우수 감소기업 정보제공 등을 통한 청년층 취업 확대 등 다양한 지원을 제공하기로 약속했다.

황선범 목포지청장은 "앞으로 광주·충청·인천·경기권까지 인재육성과 지원이 가능한 대학교를 계속 발굴해 지속적으로 관내 조선업체와 연계시켜 나가겠다"면서 "이번 협약을 통해 바깥직한 산·학·관 업무협력 체계가 구축되고, 청년층의 일자리 창출에 있어 새로운 패러다임을 구축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목포=김준석기자 kjs0533@

현대삼호중 협력업체 재해예방 연찬회

고용노동부·안전보건공단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은 최근 호철현대 목포 연회장에서 현대삼호중공업과 사내협력업체 사업주를 초청해 조선업 재해예방을 위한 경영중 연찬회를 열고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결의를 다졌다.

이번 연찬회는 목포 고용노동지청 관계자와 현대삼호중공업 대표, 사내 협력업체 경영진이 참석한 가운데 안전보건공단 백현기 이사장의 '안전보건이 지역 사회에 미치는 영향과 CEO의 역할'이

라는 주제 특강과 (유) 대우산업 장순의 대표의 안전활동 우수사례 등 순으로 진행됐다.

안전보건공단 백현기 이사장은 "경영진의 산업현장 안전에 대한 투자와 관심이 근로자의 소중한 인명보호는 물론 산재비용 절감 등을 통해 기업경쟁에 이익이 되고, 국가경제에 이바지하는 긍정적 효과 창출의 시발점"이라며 "안전경영에 대한 경영진의 의지가 산업현장 전반에 반영돼 안전수준이 높아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목포=김준석기자 kjs0533@



목포 북항 노을 공원 2년여만에 문 열어

목포 북항에 시민과 관광객을 위한 휴식공간이 문을 열었다.

목포지방해양항만청(청장 남광률)은 지난 26일 목포 북항에 위치한 노을공원(사진)을 개장하고, 친수 문화공간 조성 공사 준공식을 가졌다.

목포항만청은 총사업비 113억원을 투입해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친근한 항만을 만들기 위한 '목포 북항 친수 문화공간 조성공사'를 지난 2012년 4월 착공해

광장(2만7000㎡)을 조성하고 도로(1.1km)를 개설했다.

이 가운데 '노을공원'은 바다를 느끼고 체험하는 공간의 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수변데크와 노을광장, 이벤트 광장, 녹지 및 산책로로 나눠 시행했다. 또한 바닥분수와 휴게시설(피크닉 벤치)을 다양하게 설치해 해양특성을 살린 환경 친화적 공간으로 조성되는데 중점을 뒀다. /*목포=김준석기자 kjs0533@

이제부터 반값에 골프친다

대중골프장의 저렴한 그린피를 한번더 저렴하게
골프 대중화를 선도하겠습니다.

오시아노 대중골프장 예약 : 061)536-1000
전라남도 해남군 화원면 주광리 1064

www.oceanocc.co.kr

선불카드 할인표

총전금액	200만원	400만원	900만원
그린피 할인율	기명1인	기명1인	무기명1명(전원)
주중/주말	40%	50%	40%

공통혜택

- 캐디 선택제
- 골프장 내장시 카트비, 할인된 그린피가 충전 금액에서 차감
- 1일 18홀 적용

- 요금 안내 -

구분	금액	비고
입장료	주중	66,000
	주말(공휴일)	99,000
팀당 카트비	60,000	캐디 선택제
팀당 캐디피	100,000	

Event1 6월 카트비 면제(4인18홀 라운딩시)

Event2 2부 내장객 9홀 추가시 주중2만원/주말4만원(카트비 포함)

구매문의 061-536-3952